buddhanews.com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요

☞25면에서 계속

실의 형성된 나가, 바로 내 모습이 난 줄 알고 시간만 따지고 급급해서 날짜만 보고 애를 쓰고 사는 것입니다. 참자기의 근본이 있는 줄은 모른 채 자기가 그냥 자기라고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거죠.

옛 물도 없고 옛 산도 없고 옛 사람들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언어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작용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자기의 마음의 지혜에 따라서 인연의 업보를 지을 수도 있고 인연의 업보를 부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의 업보를 짓지 못하는 것은, 없애지 못하는 것은 자꾸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매사를 자기가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보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모습은 지속될 수 없지만 참자기는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나는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나입니다. 유생 무생이 한데 합쳐지고 일체 만물이 다 합쳐진 이 내공에 의해서 모든 것은 자기가 할 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깐 아니다 기다 이 언어가 붙지 않는 이 자리에, 꿈이다 생시다 이러한 게 붙지 않는 자리, 즉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과 그 말이 붙지 않는 자리, 생사윤회도 붙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내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달을 할 수 있고 상신할 수 있고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살아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문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랍니다. 그림그리는 게 좋아서 열심히 그리기는 하지만 내 혼을 다 실은 작품은 아직 나오지가 않습니다. 스님, 저도 마음을 다하여 살아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 어느 시골에 떠꺼머리 총각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나무를 태우면 숯이 나오는 그걸로 항상 땅에다 그림을 그리고는 했어요. 근데 하루는 여자 생각이 나니깐 여자를 그려 놓고 집에 가서 실컷 자고선 저녁 나절에 나왔더니 아, 거기 예쁜 여자가 그대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려 놓은 데서.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숯으로 그려 놨는데 말을 하네?' 하는 동시에 그 여자도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총각은 그때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으로 치면 미술이라고 하죠. 그저 어디고 붓과 먹 이런 걸 가지고선, 종이만 사 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하도 그리고 그냥. 그런데 어느 산중에 들어서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그려 놓은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림을 그릴 때도, 또 살아나갈 때도 말하지 말라." 했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하고선 그냥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그저 가다가 보기 좋으면 그린 겁니다.

근데 어딜 가다 보니까 노인네 한 분이 혼자 딸을 잃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울고 있거든요. 아, 시골 초막집에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다 놓으면서 "아, 왜 우시느냐." 하니까 자기 딸이 자기 혼자만 남겨 놓고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라느냐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살지 않느냐 그러더랍니다. 딸이 바느질품을 팔았는데 인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라고, 따님이 죽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선 그날 저녁에 큰 헝겊에다가 종이를 붙여 가지고 대필을 해 가지고는 아주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서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집 딸을요. 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딸과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안으로서 그 딸을 착을 놓고 보니까 아이구! 그 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고대로 그렸어요. 큰 배를 하나 그려 가지고 거기 떠억 앉혀 놨단 말입니다. 그러곤 물도 그려 놓고 나무도 그려 놓고 그래 놓고선 처억 벽에다 걸어 놓고 하는 소리가, 여기서 딸이 저녁이면 나와서 항상 밥을 해 줄 테니 비밀로만 하라고, 나는 딸을 봤다든가 딸이 이렇게 잘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비밀로 허라고 이렇게 그림쟁이가 일러 주고는 벽에다 붙여 주고 이건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러고선 갔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거기서 그 딸이 나와 가지고선 고깃국도 끓여 주고 밥도 해다 주고 다 그냥 또 새벽녘이면 골로 싹 들어가면 고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기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심과 유심이 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무심이라면 유심이고 유심이라면 무심이니 무심도 아니요 유심도 아닌, 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닌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린다 할지라도 산 그림이요, 글자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산 글이요, 말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산 법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손이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진짜 참나 손이 내 손으로 인도해서 그린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렇게 주인공을. 거기서 살 길이 꼭 나와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문 요즘은 자기를 희생하며 참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혼률도 높아지나 봅니다. 사실 저의 친한 친구도 죽고 못 살겠다고 우겨서 결혼하더니 남편이 교통사고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차츰 마음이 변해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답 그러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을 더 잘 알고, 자기가 넘어지면 자기 손이 제일 먼저 가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무리 자식부모지간이라도 자기 아픈 거는 상대방이 진짜 다 100%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두 달이지 만약에 일 년이 넘어가 보세요. 불쌍만, 삼 년만 드러누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또 부모가 이태 삼 년만 드러누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서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 주는 게 효자고 효녀고, 그런 것뿐이죠. 빨리 죽어 주는 게 자식한테 짐을 덜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다 소용이 없다 이 소리에요. 일체 만물, 물질이라는 것은 다 변질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못 된다는 얘기죠.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아니, 천신 만신 고생해서 시중들고 뭐 하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들입다 벌어다가 주고 이러고선 배신을 당하고. 그래, 내쫓기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떠났으면 벌써 배신당하는 거지 뭐 별 수 있나요? 몸뚱이만 있으면 뭘 합니까? 누구든지 살면서 배신을 수차 당하면서 다시 또 붙어 돌아가고 또 배신을 당하면서 다시 이렇게 연결되고 이럭하면서 살죠.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이십사 시간 동안에 한 번 편안하게 사랑하기가, 한 시간 편안하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하루 이십사 시간 동안에 고정되게 한 시간씩 참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이 왕자 부럽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마 그 한 시간이 싸움으로 변할지도 모르죠, 사랑은커녕.

그런데 나는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보다 나는 욕심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나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조금 사랑하다가 치울 거라면 차라리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나와도 조금 살다가 그냥 변질되고 없어질 물건이라면 차라리 물건으로 나오질 않겠다 이겁니다. 물건으로 나오더라도 아주 변함도 없고 남한테 이익을 줄 수 있고 눈요기도 시킬 수 있게 나온다면…. 그런데 그렇게 보여 주기만 하면 뭘 하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차라리 그저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여러분이 사는 대로 좇아서 그냥 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으로 지내려면 나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가발전소에서 모든 불을 켜서 방 안을 다 밝게 하면 눈이 컴컴하질 않아서 "여보! 여기 있으니 잡숴요." 이럴 수도 있고, "얘! 여기 있으니 먹을 거 먹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마는 방이 캄캄하면, 내가 불을 안 켜면 캄캄한 거죠. 방통이 다 캄캄한데, 전부 눈이 캄캄한데 뭐를 봐서 사랑이고 뭐고 있겠어요?

글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구, 세상에, 사랑들 한다고 그래 봤자 내가 보는 바에는, 기껏 털고 닦고 해 먹이고 해 주고 빨아 입히고 이래도, 그리고 또 남자들은 그 고생을 하고 손발을 널리고 이렇게 해서 기껏 벌어다가 줬는데 말이죠, 여자가 씀씀이를 헤프게 그렇게 쓸 때에는 '아이구! 이거 정말이지 너무하는군. 너무하는군, 모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봐서 하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죽어도 살아도 더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먹을 게 없으면 죽거리라도 얻어다가 같이, 숟갈 두 개를 꽂아 놓고 같이 먹을 지언정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나는. 단지 인간의 참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까짓 것 거적을 쓰고 죽으나 좋은 공단 이불을 쓰고 죽으나 그게 무슨 상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하는 말이 있지만, 본래 죽고 사는 게 없이 같이 사는 겁니다. 말을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부동한 능력으로써 바로 그 모든 거를 활용하고 움죽거리게 되니까, 이 육신이 무너진대도 불과 법이 둘이 아니기에, 우리가 삶을 보람 있게 살면서 항상 나 아님이 없이 즐겁게 산다는 얘깁니다. 어느 것도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항상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 변소엘 가도 같이, 언제나 같이 해 주는 그 영원한 사랑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외계인이 있을까요?

문 얼마 전 기개일식이 일어날 즈음에 중국에서 만두 모양의 비행 물체를 발견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스님께서는 화성에도 뭔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스님께서는 정말 외계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 화성에도 잘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마 맞을는지도 모르죠. 왜? 모습이 꼭 보여야만 잘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모습 없는 모습으로 이것은 우리보다도 벌써 한 계단 초월해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 안에서도 모르게 어떠한 지역에서 살면 외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모르는 고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그러한 생명들이 우리보다 더 고도로 발달이 돼서 사는 분들도 또 있죠. 우리만 이렇게 고도로 발달을 만들고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인간으로만이 우리만 산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겁니다.

자기 마음의 지혜에 따라서 인연의 업보를 지을 수도 있고
인연의 업보를 부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